

# 도교육청, 학교설립추진 개선 방안 발표

### 신설학교 공사 총액 발주...시설완공 후 개교 개교 연기 시에는 개교심의위원회 구성토록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윤옥기)은 2일 전 학년 시설완공 후 개교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학교설립추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19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달한 '완공전 개교근본 개선 대책 이행'에 대한 경기도 실정이 감안된 자체 추진 계획이다.

이번 개선 방안 따르면 학교를 신설할 경우 신입생의 학습에 우선 필요한 시설만을 완비해도 개교하던 것을 개교 2개월 전까지 모든 시설을 완공하고, 교장

등 관계자를 발령해 개교준비를 한 후 개교토록 한다.

또 모든 신설학교는 총액으로 발주해 공사를 시행토록 하고 부족한 예산은 정부에 요청하거나 기체(起費)해 충당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과대·과밀 학급이 더 이상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10년까지 768개의 초·중·고를 신설하고, 1만554개의 교실을 증축토록 계획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개선 방안에 따라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해졌으며 실제로 2005년도에 개교기로 한 121개의 학교도 27개교만이 개교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이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확보도 등의 동의를 얻고, 개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이 위원회에서 개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 교육청은 학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GB지역의 학교부지 선정과 학교신설예산 교부방식 개선 등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이며, 철근 등 자재 파동으로 인한 어려움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다각도로 진행할 것이라 고 밝혔다.

문지연 기자 soma7000@naver.com



# 사립학교 올해 학교회계 운영 공개

### 동남중·고 각각 홈페이지 탑재

올해부터 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회계 예산서의 공개 지침에 따라 경기도내 모든 사립학교가 예산

내역을 각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1월 각 사립학교에 '관', '항', '목', '세목', '산출

기초' 등을 예산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시달하고 지난달 15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결과 대상교 235개 학교가 모두 학교회계 예산서 내용을 학교홈페이지에 탑재했다고 밝혔다.

관내 유일의 사립고교인 동남고에서도 지난해 355만7천267원에서 41만4천747원이 증가한 314만2천

520원의 예산내역을 지난달 19일 공개했으며, 동남중에서도 지난해 193만19천226만원에서 9만5천2원이 증가한 203만4천728원의 예산내역을 지난달 18일 공개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예산서 공개를 계기로 사립학교의 회계 운영 건전성 및 투명성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지연 기자 soma7000@naver.com

# 우리 학교 최고 왕방초등학교 편

# 미래의 주인공은 자신감 넘치는 왕방 어린이

포천시 관내 각급 학교에서 독특한 문화나 인물, 사건, 교육제도 등 그 학교만의 자랑거리를 소개하는 '우리학교 최고'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우리 학교요? 시설이 제일 좋죠. 아니다. 선생님들이 너무 착해요."  
왕방초교(교장 한무송) 운동장에서 만난 6학년 수지는 "왕방초교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무엇이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생글생글 맑은 음성으로 수지는 곧 이어 어느 교사, 어느 교사가 좋다는 이야기를 실 새 없이 늘어놓는다. 개교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왕방초교이지만 아이들의 자부심은 다른 학교 못지 않다.

왕방초교는 '미래를 가꾸는 왕방교육'을 기치로 미래의 주인공을 키우기 위해 기본교육 충실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왕방초교의 명물로 '나의 생각 발표대회'와 졸업생들의 '20년 후 내 모습'을 선보였다.

잡아끈다.

첫 해 졸업생인 지난해 졸업생 52명이 각자 자신의 20년 후 모습을 활흠에 그려 불에 구워 벽화로 만든 것.

한 칸 한 칸 꿈나무들의 미래가 그려진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 아이들의 깜짝 놀랄 발상에 놀라운 한편 절로 웃음보가 터진다.

왕방초교 장선업 교무부장은 "교사들조차 생각지도 못했던 글씨가 많이 나와 깜짝 놀랐다"며 "미래에 졸업생들의 멋진 추억거리가 될 수 있고 학생들이 이 전시물을 보면서 성취의욕을 더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왕방초교는 앞으로 매년 이것을 제작해 교내에 전시할 계획이다.

### # 나의 생각 발표대회



### # 20년 후 내 모습

'세계를 정복해 친구에게 아시아를 주고, 다른 친구에게는 중국을 주겠다(김태양)', '나의 꿈은 군인이다. 나는 절대로 미국에게 지지 않는 나라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한영민)'

왕방초교 현관을 지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에는 독특한 전시물 2개가 방문자의 시선을

일년에 서너번씩 왕방초교의 아이들은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발표할 기회를 가진다. 지난달 3월부터 특성화 교육의 일환으로 열리는 '나의 생각 발표 대회' 시간을 통해서다.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1학년을 제외한 학생들이 학년별로 조화를 갖고 이 시간을 이용해 다섯에서 여섯명 정도의 아이들이 총 30분간 발표시간을 갖는다.

특별히 정해진 주제 없이 자연보호에서부터 하루 일과를 발표하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진다.

이렇게 실력을 쌓은 아이들은 4차례의 학년대회와 2차례의 전교대회를 갖는다. 여기서 입상한 아이들에게는 학교에서 제작한 왕방초교 전용노트가 부상으로 전달돼 모교에 대한 자긍심을 더욱 굳혀준다.

한무송 교장은 "처음에는 주눅주눅하고 긴장하던 아이들이 점차 시간이 갈수록 원고를 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발표하는 등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변모해가고 있다"고 뿌듯해했다.

6학년 이원희 어린이는 "이제는 아이들 앞에서 발표하는 게 너무 재밌다"며 "아이들이 내 얘기를 들어준다는 게 신난다"며 친진난만한 표정을 지었다.

아이들이 매일 토해내는 많은 이야기들은 '나의 의견 발표 모음집'으로 묶어 소중한 보관된다.

문지연 기자 soma7000@naver.com

# 윤중성의 미국어 따라하기



● get  
'갓'이란 이 단어는 '얻다'라는 뜻 외에도 변화무쌍한 요술쟁이처럼 다른 단어들과 결합하여 일상대화 속을 휘젓고 다니면서 뜻을 달리하며 혼란을 야기하지만 가장 매력있는 주인공이기도 하다.

1. 언제 여기에 도착 했어요?  
When did you get here?  
웬디주갓히어?
2. 어젯밤 10시에 도착했어요.

I got here at ten last night.  
아이갓히어 옛텐레스나잇

3. 내일 아침엔 몇 시에 일어 날실 건가요?  
What time will you get up tomorrow morning?  
왓타입일유게갓타무머모닝?
4. 6시엔 (꼭) 일어나야 하는데요.  
I have to get up at six O'clock.  
아이해브투게갓업시크슬러

☞문의:윤중성(017-723-4977)colyoon@nate.com

# 수필가 김창종의 현대시 감상(61)

# 중고제(中高制)

떠돌이 흥각과 한밤은 취니가  
호남의 동쪽과 서쪽에서  
소리꾼의 한을 풀어 놓았다

경기도와 충청도에서  
불어오는 판소리는  
중고제 바람으로 일렁인다

웅장하고 그윽한 동편제와  
부드럽고 애달은 서편제를  
아우러 놓고

떠돌이 흥각은 소리꾼이 되고  
애처로운 소녀는 학이 되어  
동편, 서편, 중고제로 판소리를 낸다

〈김정우 '판소리' p46〉

감상=해설  
김정우 시집(한영대역분) '판소리(PANSORI)'에서 인용한 '판소리 46'은 '판소리 시리즈 46'에 해당된다.

구 사설시조체를 현대시로 재조명하는 판소리의 참맛을 아는 사실시조의 현대시어가 잘 다듬어져 그 어울음이 그윽하고 재미있다.

시인 김정우는 '판소리'를 '한가위 달밤을 명월이라 하였는데/그 달빛 속 광대의 목에서/패창한 소리로 메아리 치는 것 같다/소리를 낼때마다 /달님을 애워싸는 구름과 같고/몸짓을 할 때마다/ 선녀가 계수나무에서 그네 뛰는 듯 하다' 라고 하였다.(표제시에서)

시인 김정우는 그의 고향 고창의 판소를 꿰뚫는 해안을 가지고 있는 고향 사랑의 시혼이 살아 숨쉬는 뜨거운 정열의 시인이기도 하다.

'판소리'를 영역하여 서방세계에 소개한 최초의 시인이다.  
김정우 시인은 아호가 백야(白夜)이다. 동국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아리조나 '벤슨' 대학에서 명예문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모암문화회장, 갈숲문화회장, 마들문화회장을 지냈으며 '고창군민의 상' '부원문학상' '한국자유시인상' '가야황금왕관세계시인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필자 연락처 02)932-2434

# 문구 · 팬시 · 악세사리 · 14K · 선물 Gift shop 송우점

신세대 유행악세서리 엑센스에서 사무용품, 향수, 패션 악세사리, 시계, 머그컵과 지제류, 팔기류를 전문판매하는 업체로서 고객과 함께 합니다.



가방 · 인형 · 지갑  
다이어리 · 케이스 등  
다양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롯데리아 송우점에서 터미널 앞으로 이전.

대표 : 국 승 선

TEL : 031)543-9405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220

